

# 나경언 고변사건[羅景彦告變事件]

## 사도세자의 난행과 역모를 말하다

1762년(영조 38) ~ 미상



### 1 개요

이 사건은 1762년(영조38) 나경언이 세자의 궁녀 살해, 여승의 궁궐 유입, 관서 유람 등 사도세자의 허물과 비행을 영조에게 고변한 것이다. 고변을 한 나경언의 배후에는 세자를 배척하는 벽파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조가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는 임오화변(壬午禍變)이 발생하였다.

### 2 영조의 유일한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영조의 유일한 왕자이며, 이름은 이선(李愔)이다. 어머니는 영빈(暎嬪) 이씨이다. 첫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가 1728년(영조 4) 9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 7년 만에 탄생한 왕자였다. 영조는 "삼종(三宗)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列聖祖)에 배알(拜謁)할 면목이 서게 되었다."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즉시 중전의 양자로 들어 원자의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관련사료](#) 다음 해인 1736년(영조 12) 세자로 책봉하였다.

[관련사료](#)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병서 읽기와 군사놀이를 즐겨하는 등 무예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무기신식(武技新式)』이라는 책을 저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문에 흥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사도세자의 무인 기질은 엄격한 규율을 실천했던 영조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다.

### 3 사도세자, 대리청정을 시작하다

1749년(영조 25)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신하가 아뢰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依爲之]’라는 세 글자로 대답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자신의 의견을 참작한 뒤에 결정할 것을 세자에게 당부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정책 현안에 대한 세자의 결정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었다. 관련사료 이러한 영조의 행동은 세자에게는 부담이었다. 세자는 대신들의 우려를 살 정도로 정책 현안에 신중히 처신하며 영조의 만족을 얻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영조는 대리청정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세자와 함께 하는 차대(次對)를 파하였다. 관련사료

한편, 영조는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로 3년 만에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양위 소동을 벌였다. 육순을 기념하는 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었다. 관련사료 당시 홍역을 앓고 있던 세자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양위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세자를 보고 “자신이 육아편(蓼莪篇)을 읽을 것인데, 네가 눈물을 흘리면 효성이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너를 위해 내렸던 전교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육아편은 자식이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 부모에게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식이 죄스러워 하는 의미를 가진 시였다. 세자는 육아의 끝 편에 이르렀을 때 영조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줄줄 흘렸고, 결국 영조는 양위 전교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영조와 세자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세자로 하여금 영조의 문안을 등한시하여 부왕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세자를 심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세자가 당파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영조와의 갈등은 커지게 되었다. 나주벽서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자가 소론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조실록』에 전해지는 세자의 모습은 질병이 많았고, 그로 인한 이상한 행동도 자주 나타났다. 대리청정한 후부터 생긴 질병은 증세가 악화되었다.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宮婢)와 내시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또한 임금에 매번 하교로 엄하게 책망하여 세자의 병이 깊어졌으며, 이는 부왕 영조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어난 후에 더 멀어졌고, 세자는 내시, 기녀와 놀면서 하루 세 차례의 문안을 모두 하지 않았다. 관련사료

결정적으로 1761년(영조 37) 4월 세자의 관서 유람은 영조를 격노하게 했다. 노론은 여자를 대동하고 간 세자의 행보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영조는 세자의 관서행과 관련된 승지들과 세자궁의 관료들을 처벌하였다.

관련사료 한편, 세자는 약방의 입진을 거절하면서 시민당 앞뜰에 나와 거적을 깔고 관서행에 대해 대죄하였다.

### 4 나경언, 세자의 비행을 말하다

나경언은 액정 별감(掖庭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으로,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로 생활하였다. 『영조실록』에는 나상언의 사람됨을 불량하고 남을 잘 꾀어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그가 가산(家産)을 탕진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세자를 제거할 계책을 내었다고 고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나경언의 고변이 있자, 영조는 성문 및 궁궐 문을 닫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즉시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국청(鞠廳)을 설치하였다. 이때 시임대신 홍봉한(洪鳳漢), 윤동도(尹東度)와 원임대신 신만(申晩) 등이 입시하였다. 영조는 추국을 지휘할 사람으로 남태제(南泰齊)를 지의금부사로 삼아 한익모(韓翼謨), 윤득양(尹得養), 홍낙순(洪樂純) 등 8인과 함께 죄인을 국문하도록 하였다.

추국이 진행되자 나경언은 옷 속에서 흉서(凶書)를 꺼내놓으면서 이 글을 왕에게 바치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어 형조에 “환시(宦侍)가 장차 불궤(不軌)한 모의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였다. 나경언의 고변서는 영조가 입시한 홍봉한, 윤동도에 읽게 한 후 홍봉한의 건의에 의해 바로 불태워졌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단편적인 항목들만 『영조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세자의 허물과 비행이다. 내용은 세자가 일찍이 궁녀를 때려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였으며, 관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북성(北城)으로 나가 유람했다는 등 10여 조였다. 또한 “변란이 호홉 사이에 있다.”고 역모의 조짐을 말해 영조로 하여금 궐문을 호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나경언의 고변사건은 바로 홍봉한에 의해 창덕궁에 있는 세자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세자는 깜짝 놀라며 즉시 대궐로 나와 창경궁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 엎드려 대죄(待罪)하였다. 그러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경언과의 대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대질을 요청한 세자의 요구를 나라를 망치는 말이라며 일축하며 국정을 대리하는 세자가 죄인과 면질을 해야겠냐고 오히려 세자를 꾸짖었다. [관련사료](#)

국청에서 쫓겨난 세자는 궁관에게 나경언의 배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나경언이 영조의 명에 의해 투옥되었기 때문에 세자는 나경언의 처와 아우 나상언을 추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변의 배후자는 윤광유(尹光裕)였다. 그는 우의정 윤동도의 아들로 소론 명문가의 자제였다. 세자는 이 사건을 자신과 소론을 이간질하려는 노론의 음모라고 생각하였다. [관련사료](#)

더욱이 나경언도 국문과정에서 “동궁을 무함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고변이 무고임을 자백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자를 무함한 나경언을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율에 따라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나경언을 처형하였다. [관련사료](#)

## 5 영조,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

나경언의 고변사건이 처리되자 영조는 그 후속 조치로 시전 상인들을 불러 세자가 진 빚을 갚아주었다. 이유는 나경언의 글에서 내수사와 명례궁(明禮宮), 어의궁(於義宮), 수진궁(壽進宮), 용동궁(龍洞宮)의 사궁(四宮)에서 시전 상인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수사와 4궁의 창고가 빈 것은 세자가 주야로 액속(掖屬)의 무리들과 유희하였으며, 그들에게 엄청난 상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관련사료](#)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후 영조는 세자를 폐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762년(영조38) 윤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뒤주에 엄히 가두었다. 다음날에는 내시 박필수(朴弼秀), 여

승(女僧) 가선(假仙), 관서의 기녀 5명을 잡아와 모두 참수하였다. 박필수는 세자를 종용하여 함께 놀러 다니면서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지른 죄로 처형당했다. [관련사료](#)

이처럼 나경언의 배후에는 노론의 음모가 있었다. 세자 자신도 나경언의 고변을 자신과 소론을 이간질하려는 노론의 음모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나경언의 고변은 세자에게 여파가 너무 컸다. 그것은 바로 영조에 의해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